

“만약 내가 몸이 아프다면 누구 책임일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일까 아니면 혼자 개인의 책임일까?”

“나는 직장을 원하는데 직장이 없다.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인가?”

위 질문에 대하여 유럽인들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다. 한국인은 몸이 아픈 것의 책임은 개인이지만 직장이 없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유럽의 복지 모델은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 이후 소득, 질병의 보장은 국가, 사회의 책무를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인지 복지체계를 미국식인 ‘선 개인책임, 후 국가책임’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비경제 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있었다. 만 15세 이상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제 활동 포기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인데, 지난 2월 기준 1623만명(통계청)이라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중 사실상 증가하고 있다는게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3%로 서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비경제 활동인구 중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자, 구직활동 중단자, 구직단념자는 모두 248만명이고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너희가 실업자의 고뇌를 아느냐

여기에 통계상의 실업자 92만명, 아르바이트, 임시휴직자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실업자는 4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은 3.3%가 아니라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경제활동인구 1600여만명은 실업자 이외에 일주일에 1~2시간도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일자리 추경예산이라며 세수감수분 11조 2000억원을 포함한 29조 9000억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금융과 건설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추경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예산은 2.8조 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2조는 40만 가구에 대해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게하고 월 63만원의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8000억원 은 중소기업인턴, 학습보조인턴 등 15만개를 만든다는 것인데 계산해보면 1인당 월 평균 46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거의 한시적 공공근로만으로 채워졌다

고 볼 수 있다.

실업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자 문제가 심각치 않다는데 우리는 큰 우려를 한다. 실업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많겠지만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경제 성장, 골목산업, 서비스산업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 또 일자리 나누기사업, 실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 맞춤 교육도 중요하다. 청년실업자의 경우 대기업, 공사, 공무원 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또 해외에 눈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자신만의 특화된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직자, 실업자의 고뇌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져 있는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갑갑한 밤중에 등불도 없이 황야를 헤매는 마음을 정책결정자들은 짐작할 수 있는가.

정부와 사회는 실업자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사회에게 실업자를 대신하여 질문한다. “너희가 실업자의 고뇌를 아느냐.”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성지 파괴 자연환경훼손. 녹생성장시대에... (Image of a person with a staff)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사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사부대중 테마칼럼

4월의 테마-감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재의 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한다.

어둠속에서 밝음을 볼 수 있고, 침묵 속에서 시끄러움을 그리워하는 인간

그리움에서 애뜻함을 느끼고,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전향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의 가치를 더욱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나는 인간성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인 것에 감사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나 자신은 이 세상에 감사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어명이 움트지 않은 새벽 3시 반, 도량석을 들고 예불을 올린다. <반야심경> 봉독과 108배를 잇는 나의 하루는 참회와 감사로 시작된다. 하루의 마무리도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이는 것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한다.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행복하려면 자신이 바라는 만큼 가득 채우거나 자신의 바램을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는 방법뿐이다.

그러려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다. 증생은 탐·진·치 삼독(三毒)에 갇혀 산다. 무엇을 하려하는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충돌하면서 갈등을 겪는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의지와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결코 원하지 않았던 비난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마련인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불행이다.

이때 “아~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다가온 상황에 아무 의지도 감정도 없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까닭이 없다. 아무리 원치 않던 일이라 해도,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해도 “이만하게 끝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

을 갖는다면 그 순간이 행복이다.

행복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찾을 때 얻어진다.

5월 2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부처님 탄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것을 뜻하지만, 증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보인 날이기도 하다.

견성(見性)하면 누구나 성불한다. 그것이 내가 부처인 까닭이지만, 남도 부처가 되는 이유다. 때문에 나도 부처, 남도 부처이며, 부처인 나와 남은 하나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처님 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현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희철 스님

서울 부암사 주지, 동국대 박사

社說

연등축제 사전 준비 철저히

올해의 연등축제는 4월 26일 장충체육관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물론 조계사 앞 축제는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된다. 수년간 연등축제 장소로 사용해 왔던 대운동장이 철거됨에 따라 부득불 연등축제의 어울림마당은 장충체육관 실내에서 열리고 이어서 화합한마당은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화합한마당이 끝나는 대로 축제의 하이라이트 제등행렬이 시작되는데 동국대에서 장충체육관을 거쳐 동대문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셈이다. 장등들은 동대문 이전 정해진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행렬과 합류한다.

장소의 이원화와 행렬구간의 변화 그리고 장등등의 별도 합류 등 예년에 비해 연등축제의 진행 과정이 복잡해진 것이다. 서울시내에는 연등축제를 감당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장충체육관이나 동국대 운동장에 입장하는 불자의 수를 제한해야 하는 일도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봉축위원회는 상당히 긴장해야 한다. 참여 사찰과 단체들에게 당일 일정과 행사지침을 충분하게 공지하여 진행상 혼선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참가단체들이 장소와 행렬의 흐름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축제도 망치고 사고 위험도 생긴다. 봉축위는 참가 사찰과 단체에 자세한 일정과 행사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철저히 주의 사항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구호사업에 뛰어 든 종책모임

조계종 중앙종회의 종책모임이 국제구호 운동에 뛰어 들었다. 종책모임 화엄회가 지구촌공생회와 미얀마 화엄초등학교 건립과 관련, 협정을 하고 지정 기탁금 2억 원을 기탁했다. 또 로터스월드와도 업무협정을 하고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씨엔립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 3억 원을 전담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이 같은 날 기존의 두 국제구호단체와 협약을 하고 적지 않은 기금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화엄회의 이날 행보는 종단의 중요 소인자인 중앙종회의원들이 국제구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동참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모임의 성격이 종단 내부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해의 각도가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하필이면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협약을 했느냐는 시선도 있고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본분사인 의정활동 보다 구호사업에 더 공을 들이는 것 같다는 빈정 섞인 시선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앞으로의 활동을 입증해 줄 것이다. 동기가 순수하면 순수하게 구호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단 입법기구에 속한 종회의원들이 국제구호사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국제구호 사업이 보다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검토와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번 화엄회의 협약들이 그런 패러다임 구축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命理學 수강생 모집. 석충원(명양 명리학당)에서는 사주명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입문반, 연구반, 실전반,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상담, 연락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5-43

패철 보는 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풍수지리 이기들의 명작 나경·사충법. 연습용 19종 길라잡이 나경도해삼인.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신산.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경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